

양캠 독서왕이 말한다, “우리는 왜 책을 읽는가?”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21년 우리나라 성인 연간 독서량은 4.5권이 다. 한 달에 0.4권이 채 되지 않는다. 책을 읽지 않아도 모든 정보가 한 손 안에 있는 시대다. 우리신문은 2023년에도

책을 읽는 이들을 찾았다.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양 캠퍼스 중앙도서관이 집계한 도서 대출권수에서 허광혁(한의학 2020) 씨는 72권, 이성빈(소프트웨어융합학 2022) 씨는 58권의 책을 빌렸다.

슬기로운 중도 생활

이성빈

소프트웨어융합학 2022

2023년도 2학기가 개강하였다. 아직은 비교적 한산한 중앙도서관이지만, 얼마 후 시험기간이 되면 열심히 공부하는 학우들로 3개의 열람실 모두 꽉 차 있는 진풍경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분명 도서관의 모습이지만, 요즘은 종이책 보다 전자책이나 pdf를 사용하여 공부하는 학우들을 더 자주 볼 수 있다.

이 때문일까? 교육부가 발표한 ‘2022년 대학도서관 실태조사 결과 분석’에 따르면 재학생 1인당 종이책 대출권 수는 2012년 평균 8.6권에서 2022년 2.7권까지 떨어졌다.

통계와 같이, 종이책은 효용 가치가 떨어진 매체에 불과한 것일까?

필자는 종이책이 전자책과 비교하였을 때, 비싸고, 무겁고, 휴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여러 책을 통해 집중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

또, 도서관 1층 사물함을 이용하면 책을 무겁게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된다. 도서관 열람실에서 공부를 한다면 무겁게 책을 들고 이동할 이유가 없다.

책을 고르는 과정 또한 도서관 이용의 장점 중 하나이다. 많은 사람들이 도서관에 처음 방문하면 어떤 책을 빌려야 할지 고민하다 결국 자신의 수준과 맞지 않는 책을 빌리곤 한다.

하지만, 이러한 시행착오들을 몇 번 겪다보면 책을 보는 안목이 생겨 일일이 검색해 보지 않더라도 자신에 수준에 알맞는 좋은 책을 골라 읽을 수 있게 된다. 이것이 도서관 이용의 큰 재미 중 하나이다.

혹시 이 글을 읽고 독자가 찾는



이성빈 씨에게 우리학교 학생에 독서를 독려하는 한 마디를 부탁하자 “원하는 책을 가까운 곳에서 무료로 빌릴 수 있는데 도서관을 이용하지 않는 것은 손해”라는 간결한 답이 돌아왔다. (사진=박서현 기자)

또한 그렇지만, 아직도 우리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에는 종이책이 전자책보다 우위에 있다 생각한다.

캠퍼스 내에서 공부할 때에는 종이책의 단점들을 대부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도서관에는 학우들이 찾는 책이 대부분 존재한다. 그러므로 따로 비싼 돈을 들여 전공 도서를 구입할 필요가 없어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다.

또한, 수업의 교재로 명시된 책 이외로 추가적으로 공부를 진행 할 때 도서관의 책들은 정말 큰 도움이 된다. 자신이 공부하고 싶은 내용만

책이 없을 수 있다는 걱정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전공도서의 경우 평범한 학부생인 필자가 찾는 책이 없던 경험은 없다. 어떤 책을 찾더라도, 그 책은 이미 도서관에 존재한다.

만약, 새로운 책을 구입 신청 한다면, 대부분 이 주 내로 책이 도서관으로 입고 된다.

이처럼 도서관의 자료대출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면 더욱 슬기로운 공부 생활을 즐길 수 있다.

새 학기의 시작과 함께 새 마음이 집으로 함께 공부를 시작할 학우들께 이 글이 도움 되었으면 한다.

추천도서

서울캠 독서왕이 뽑은 추천도서와 코멘트

- 광장(최인훈)
 - 당신은 무엇을 위해 그 힘든 고난을 이겨냈고, 또 이겨내며 살아갈 것인가?
- 논어(공자)
 - “有朋自遠方來 不亦樂乎, “不患人之不己知, 患不知人也”
- 안나 카레니나(레프 톨스토이)
 - 소설에서 철학이나 교훈을 찾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처음으로 가르쳐 준 책이다.
- 한의원 밖으로 나간 한의사들(대만드)
 - 한의대생의 진로고민에 참고가 되는 좋은 책
- 여덟 단어(박웅현)
 - 삶과 관련해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좋은 책

국재캠 독서왕이 뽑은 추천도서와 코멘트

- 피닉스 프로젝트(진 김)
 - IT관련 직종을 꿈꾸는 학우들이 업계에서 사용하는 개념과 운영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
- 틀리지 않는 법(조던 엘렌버그)
 - 수학책이라 지레 겁먹고 꺼릴 필요 없다. 수학을 교양으로 배우고 싶은 사람에게 공식이 잔뜩 적힌 전공서보다 이 책을 추천한다.
- 인간관계론(데일 카네기)
 - 십여 년의 시간이 지나 다시 읽고 스스로가 달라졌다는 것을 느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뒤에 이 책을 다시 읽으면 어떨지 궁금해진다.

나는 왜 책을 읽는가?

허광혁

한의학 2020

어릴 때부터 책을 좋아했고 요즘은 특별한 이유없이 습관적으로 읽습니다. 책을 읽는 첫 번째 이유는 독서를 통해 무언가에 대해 ‘아는 책’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무언가에 대해 ‘아는 책’하는 것은 적어도 그것을 인식할 수 있다는 능력을 전제하기에 마냥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책을 읽으며 새로운 것에 눈이 트일 때, 내가 몰랐던 것은 무엇이고, 이미 알았던 것들은 어떤 식으로 표현되고 정리되어 있는지 다시 생각해봤던 것 같습니다. 특히, 여러 분야의 사람들과 알게나마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이 독서의 가장 큰 매력 아닐까요? 다만 독서를 통해 얻은 지식은 실제 경험하거나 전문적으로 공부한 것이 아니기에 ‘아는 책’을 넘어 ‘아는 것’으로 넘어가기 힘들다는 한계가 있어 그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스스로 ‘조율’하고 본인이 무엇을 좋고 싫어하는지 자유롭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어떤 글은 어렵지만 술술 읽히

이거나 다음에 읽을 책을 도서관 홈페이지를 뒤지며 고민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그 자체로 너무 즐겁습니다.

다치바나 다카시의 '뇌를 단련하다'라는 책에서 저자는 20대 초중반 이 자아정체성과 이해력이 적절한 균형을 이루어, 새로운 생각과 사고 방식을 자아에 수용하기 가장 적합한 때라고 합니다. 대학 사회에는 다양한 사람이 존재하고, 그들과 교류하게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주제에 구애받지 않고 편하게 책을 읽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시기를 보내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또한 책을 읽는 것과 사람을 만나는 것이 '새로운 세계에 발을 들여놓는다'라는 점에서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울고 웃게 만들고, 나를 꾸짖거나 맞장구를 쳐주며 위로해주는 책들 하나하나를 여행하며, 단혀있던 내 머리를 쫓아주는 도끼와 같은 글에 전율하고, 나만 하는 줄 알았던 생각을 종이 위 다른 사람의 언어로 만나는 것은 말로 참 즐거운 경험 같습니다. 비싸거나 절판되어



“우리는 주제에 구애받지 않고 편하게 책을 읽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허광혁 씨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 대학생으로서의 시간을 책과 함께하고 있다. (사진=정혜원 기자)

기도 하고 어떤 글은 쉽지만 몰입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헤르만 헤세의 '싯다르타'와 한강의 '채식주의자'가 그러했습니다. 이 책이 왜 다시 생각이 났고 그때와 지금의 독후감은 각각 어떠한 등을 생각하는 과정 속 지금의 ‘나’를 성찰하고, 진정한 ‘나만의 호불호’를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독서라는 행위, 그 자체가 너무 좋습니다. 카페에서 샷 추가한 아이스라떼와 함께 책을 읽는 것. 내 방 침대 위 차렵이불에 아늑히 안겨 책을 펼치는 것. 그러다가 좋은 것이 생각나는 것이 있으면 노트에 끄적

구하기 어려운 책들은 대부분 중앙도서관에 구비되었고, 전자책이나 전 세계의 논문들 역시 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찾아 읽을 수 있습니다. 사람 관계와 달리 독서 생활에는 외도(外道)가 없기에 수많은 글 중에서 아무거나 골라, 읽다 재미없으면 그만 읽어도 되고 동시에 여러 책을 읽어도 괜찮습니다. 마음 가는 대로 읽으며 본인과 찰떡궁합인 책을 만나는 즐거움을 느껴보았으면 합니다. 어쩌면 저는 그런 근사한 경험을 하기 위해 책을 읽는 결지도 모르겠습니다. 멋진 경험을 여러분들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